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7호 [루게 제22989호] 주제99 (2010)년 2월 6일 (토요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 동 구 호 -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진군의 길에서 우리는 올해에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을 맞이하게 된다.

백두산총대가 높이 울린 해방의 종소리가 조국 강산을 진감하던 주체34(1945)년 10월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것은 자주시대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양양한 전도를 열어준 정치적사변이었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5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서 주체의 당건설위업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결출한 인민의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였기에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대중적당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될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은 빈터우에서 천리마의 역센 나래를 펼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거연히 솟아오를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승리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신 주체의 당건설위업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은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완성되고있다.

일찌기 우리 당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선군혁명의 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동지를 강성변영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게하신다.

오늘 자주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높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선군천리마를 타고 강성대국의 평마루에 솟구쳐오르는 김일성동지의 영웅적기상은 곧 백두의 천출위인 김정일동지의 기상이다.

김정일동지의 무한대한 열정과 완강한 공격정신,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선군조선에 승리와 번영의 변이 일어나고 인민의 세기적리상이 전면적으로 꽃피어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당창건 65돐을 맞이하게 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의 크나큰 긍지이며 영예이다.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은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온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는 력사적인 계기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강성대국으로 솟구쳐오르는 김일성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만천하에 펼치는 대정지축전이다.

우리는 지난해전투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다시한번 최후승리를 위한 대전투를 힘있게 벌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일대 변혁을 이룩하고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설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한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강력한 군사적힘과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대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만세소리, 강성부흥야리랑의 노래소리를 더 높이 울리게 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새해벽두부터 눈보라 강행군길을 헤치시며 최첨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선전들을 편이여 현지도하고계신다.

김정일동지께서 불철주야로 쉬임없이 이어가고 계시는 현지도강행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는 김일성조선의 강성변영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분투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삶과

투쟁의 교과서이며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인들과 근로자들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돌격전으로 부르는 힘찬 나팔소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당의 호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며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퍼 올림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해, 인민의 행보가 활짝 꽃피어나는 번영의 해로 빛내이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공동구호를 발표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빛내이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위한 최대의 민족사적위업이며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대한 수령 제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여나가는 수령님의 참된 전사, 제자가 되자!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수령님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이다.

성강의 로동계급처럼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구상하고 념원하신 문제들을 한몸마쳐 실현해나가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러오신 전설속의 천리마가 선군조선의 창공에 더 높이 나래치게 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성대국건설념을 빛나게 실현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나가자!

오늘의 대고조선군은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민족의 대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일심단결의 진군이다.

불세출의 명장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 만방에 빛내이자!

대고조의 승리로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령도업적을 생생선으로 틀어쥐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선군의 푸른 하늘아래 행복의 락원을 꾸려나가자!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동지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나가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조국관을 체질화한 선군조선의 참된 애국자, 강성대국의 뿌리가 되자!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인한 정신력은 선군조선의 제일국력이며 혁명적대고조의 기본추동력이다.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총폭발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하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과 무비의 용감성으로 선군의 내 나라를 통성변영하는 대강국으로 빛내이자!

당창건 65돐을 우리 당력사와 조국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자!

당을 따라 고난의 천리길을 꿰뚫어 걸어온 우리 인민들에게 천만가지복을 안겨주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는것은 올해 대고조선군의 총적투쟁방향이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2010년을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어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자!

전체 인민들이여!
전체 인민들이여!
전체 인민들이여!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서자!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자!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 희망의 두개전선이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자!

질 좋고 값 낮은 우리 상품들로 상점들을 꽉 채우자!

모든 식료가공품을 삼일포복산물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자체의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지방공업 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자!

생활필수품직장, 작업반들과 가내작업반들에서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라!

단천지구광산, 기업소들은 인민생활향상의 전초부대의 역할을 다하라!

소금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라!

봉사시설들을 현대화하고 상품공급과 사회양양,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라!

휴양소와 료양소, 정양소와 명승지마다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자!

모두다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로!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자!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

지대적특성에 맞는 다수확품종들을 대대적으로 심으라!

두벌농사면적을 늘여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라!

대홍단기풍으로 감자농사에서 연속 통장훈을 부르자!

콩농사를 알심있게 하여 흐뭇한 콩풍경을 펼쳐자!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방법을 널리 받아들여라!

전체 농업근로자들이여!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오탁백과 주평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자!

은 나라 농장벌에 만풍년의 로적가리를 높이 쌓아올리라!

미곡과 은홍, 동봉과 신암, 삼지강을 따라잡기 위한 맹렬한 추적전을 벌리라!

거름더미는 쌀더미이다.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모든 논밭을 옥토로 만들라!

고기와 알, 젓가공품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자!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농축산물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라!

모든 파수밭을 청춘파원으로 만들고 과일농사를 과함해, 현대화하자!

남새와 공예작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라!

누에고치와 목화솜생산을 늘여 비단폭포, 천록포가 쏟아지게 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자!

수산물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자!

대의무역을 확대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라!

4대선행부문은 인민경제의 기관차이며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적고리이다.

철은 공업의 왕이며 만부의 밀천이다. 철에서 기계도 나오고 쌀도 사랑도 나온다.

금속공업부문 로동계급이여!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목표를 돌파하라!

주체철생산체계를 완비하고 철강재생산을 대폭 늘이라!

김철로동계급이여!
강선의 봉화를 김철의 불길로 이어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라!

더 많은 쇠들을 캐내어 야금기지들에 보내주라!

내화물혁명을 일으키라!

전기는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이며 광명의 원천이다.

전력공업부문 로동계급이여!

전력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여 온 나라에 대고조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고 락원의 불야성이 펼쳐지게 하라!

발전소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라!

송배전체계를 개선완비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자!

실리가 큰 중소형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여 전기부자마을, 전기부자군을 늘여나가라!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검은금이다. 석탄에서 전기와 주체철, 세멘트도 나오고 비료도 쌀도 나온다.

석탄공업부문 로동계급이여!

화력발전소들과 금속, 화학, 경공업공장들에 질 좋은 석탄을 더 많이 보내주라!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생산을 줄기차게 내밀라!

새 탄광들과 새 갱들을 전망성있게 개발하라!

렬차의 기적소리는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이며 인민의 재부가 늘어나는 소리이다.

철도운수부문 로동계급이여!

중송투쟁의 불길높이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대고조선전들을 더 많은 화물을 더 빨리 실어나르라!

철도에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을 세우라!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려객수송과 화물수송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라!

기관차와 차량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철길강도를 높이라!

철도와 자동차, 배의 련대수송을 강화하라!

은 나라가 떨쳐나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힘있게 지원하자!

경공업혁명, 농업혁명은 곧 화학혁명, 기계혁명이다!

2. 8비발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여!

화학제품생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주라!

남흥과 흥남을 비롯한 전국의 비료생산자들이여!

비료는 곧 쌀이다.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농업전선에 보내주라!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이여!

현대적인 방직, 신발, 식료가공설비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보내주라!

중요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라!

주체공업의 자랑 CNC공작기계를 더 많이 생산하라!

기계설비들의 CNC화를 강력히 추진하라!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적극 장안제작하라!

공구생산기지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공구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라!

중요대건설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는 보람찬 투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특별감사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최첨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금야강발전소, 례성강발전소, 어랑천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조업을 최대한 앞당기라!

흥남가소화대상공사와 단천항건설을 완강하게 밀고나가라!

대동강파수종합농장 확장공사와 고산파수농장 현대화공사를 힘있게 다그치라!

수도건설에서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선군시대 《평양번영기》를 펼쳐자!

만수대거리살림집을 본보기로 하여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라!

만포시, 미곡리와 같은 사회주의선경도시, 사회주의리상촌들을 도처에 일떠세우라!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세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 동 구 호

-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

1 면 에 서 계 속

설계는 건설의 첫 공정이다. 설계혁명을 일으키라!

시공을 공업화, 현대화하라!
선 하부구조, 후 상부구조건설원칙을 철저히 지키라!

건설혁명, 살림집혁명은 곧 경제혁명이다. 대동강타일과 같은 만점짜리 건재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라!

상원과 순천을 비롯한 세멘트생산기지들을 만부하로 돌리라!

도시경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라!

도로혁명을 다그쳐 도로의 문화성과 견고성을 더욱 높이라!

모든 강을 락원의 강, 보배강으로 만들자!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녹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 공원속의 마을로 만들자!

후대들에게 황금산, 보물산을 물려주자!
간석지개간을 힘있게 내밀어 조국의 대지를 넓히자!

통나무생산에서 양양을 일으키라!
땅속의 보물을 더 많이 찾아내라!

유색금속과 비금속광물생산을 부쩍 늘이라!
체신의 현대화를 다그쳐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적극 도모하라!

새로운 전자요소들을 더 많이 생산하라!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자면 경제관리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경제일꾼들이여!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라!
생산과 경영활동을 전국가거리익에 맞게 하라!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제작전과 조직, 지휘를 대담하게, 박력있게 하라!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대고조진군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라!

폭넓고 깊이있는 경제관리지식을 소유하고 경제적공간들을 능숙하게 활용하라!

자재공급사업을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하라!

로력조직과 로력관리를 개선하여 480분로동시간을 철저히 보장하라!

계획규률, 재정규률을 엄격히 세우라!
규격화사업을 개선하며 품질감독사업을 강화하라!

절약이자 증산이다. 한공수의 로력, 한W의 전력, 한방울의 연유도 극력 아껴쓰자!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자면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재국주의자들의 《제재》책동을 자력갱생의 대고조폭풍으로 단호히 쳐갈기자!

성강의 본태로 경제건설의 전 전선에서 국산화, 주체화의 포성을 통쾌하게 울려나가자!

대주면 좋고 안 대주어도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자!

강계정신, 자강도사람들의 일본세를 본받아 제 힘으로 강성대국리상도, 리상군을 꾸려나가자!

올해의 대진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자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경쟁속에 정신력발달의 묘술이 있고 집단적혁신의 열쇠가 있다.

앞선 단위들이 장훈을 부르면 대담하게 도전하여 빅장훈을 부르라!

오늘의 대고조에서 승리의 비결은 첨단을 돌파하는데 있다.

첨단을 돌파하라!
세계를 향하여 파감히 돌진하라!
오늘의 첨단돌파전은 모방이 아니라 우리 식의 창조를 요구한다.

우리 식으로 착상하라, 우리 식으로 창조하라!
자기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하나를 창조해도 우리 식으로 남보다 월등하게, 세상에 없는것도 용감하게!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을 개척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과학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라!

두뇌전, 기술전을 벌려 세계를 딛고 오르라!
CNC기술을 정복한 기세로 모든것의 패권을 쥐자!

모두다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생각하고 화선용 사들처럼 첨단고지를 단숨에 점령하자!

첨단돌파자의 긍지안고 승리의 전선에서 만나자!

과학기술전선은 첨단돌파전의 《1211고지》이다.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이여!
정보산업시대 첨단돌파전의 전초병이 되라!
우주과학기술과 핵기술을 정복한 기세로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를 최첨단수준에 올려세우라!

정보기술과 나노기술, 생물공학발전에서 대비약을 일으키라!

기술공학과 기초과학을 급속히 발전시키라!
대고조시대가 고대하는 과학연구성과를 내놓으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 조직지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라!

주체의 강성대국은 발전된 문화를 가진 문명국이며 첨단돌파의 기상은 문화전선에서도 세차게 나래쳐야 한다.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빛내이자!

승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대고조인재 풀간들을 키워내라!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무료의무교육제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원들의 자질도, 교육조건과 환경도 최상의 수준으로!

당의 예망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라!
정성은 사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이다!

대중약품, 필수약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무상치료제가 더 큰 은을 내게 하라!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선군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하라!

로동과 국방을 위하여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자!

21세기의 혁신적안목과 1970년대 창조방식, 투쟁기풍으로 선군시대 영화혁명,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라!

기자, 언론인들은 천만군민을 대고조격전제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진격의 나팔수가 되라!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는것은 백두산총대철학이며 오늘의 대고조는 선군대고조이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인민보안기관의 전체 장병들이여!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을 무적의 총대로 굳건히 담보하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당의 첨단돌파사상을 구현하여 인민군대의 전반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자!

오중총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백두산혁명강군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라!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련대가 되자!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명군체계와 혁명적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라!

전군을 혁명화, 사회주의애국주의화하자!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판병일치, 당청일치, 군정배합을 확고히 실현하라!

인민을 돕자!
원민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선군조선의 밑뿌리인 군민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자!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준비하라!

부대지휘관리를 개선하고 강철의 군기를 확립하여 최정에혁명강군의 품격과 면모를 남김없이 떨치라!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하라!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을 철저히 배격하라!

적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라!
적들의 도발에 정의의 보복섬멸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단호한 립장이다.

적들이 함부로 덤벼든다면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자!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사회의 본보기를 창조하며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선도하라!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돌격속도, 일당백속도로 중요대상건설을 최대한 다그치라!

총대를 사상정신적으로 부식시키려는 적들의

심리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라!
인민보안기관은 계급투쟁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가는 최고사령관의 믿음직한 내무군이 되라!

인민보안, 사법감찰기판들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라!

사회주의본태를 흐리는 현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라!

《향기로운 바람》에 취해 노예가 되지 말고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주인으로 살아가자!

국방공업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원천이며 인민생활향상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국방공업부문 로동계급이여!
백두산혁명공업, 강성대국의 병기창을 튼튼히 다지자!

국방공업부문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포성을 더 높이 울리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방공업발전에 필요한것들을 제때에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라!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자!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자!

로동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군위대원들이여!
투철한 대적관념을 가지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라!

조선로동당은 선군혁명의 전위대이며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이다. 당의 명도적역할을 높이는데 대고조의 승리가 있고 인민의 행복이 있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자!

전당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우리 당을 백두의 혁명전풍을 꽃꽂이 이어가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자!

전당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대고조사상과 강행군정신으로 승수고 행동하자!

당조직들의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당세포를 대고조시대의 활력있는 기층조직으로 만들자!

일심단결이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면 민심은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이다.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자!

당조직들은 대고조의 불도гани에 비약의 열풍을 뿜어주는 송풍기가 되자!

당조직들은 대고조의 기관차가 질풍같이 내달리게 하는 가속기가 되자!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일대정치사상공세를 벌리자!

선전선동사업을 참신하고 실효성있게 벌리자!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온 사회에 혁명적열광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하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 대고조전투장마다에 세폭의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게 하자!

대고조전투에서 선군시대 공로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자!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다!
후방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나가라!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정치적무기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자!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혁명적법질서를 튼튼히 세우자!

정권기관들은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자!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는데 한몫 단단히 한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

군들과 같은 쇠소리나는 지휘성원들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일꾼들이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리상도 각오도 걸음도 같이 하는 강행군동지가 되자!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정책을 결사관철하여 선군만경을 펼쳐는 완강한 실천가가 되자!

집단에 없어서는 안될 일꾼, 쟁쟁한 실력가가 되자!

군중의 심장에 남는 일꾼이 되자!
전체 당원들이여!

당창건 65돐을 빛내기 위한 총진군의 앞장에는 마땅히 당신들, 로동당원들이 서야 한다.

수령님 키우신 락원의 10명당원들과 장군님 키우신 락원의 8명당원들처럼 당기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자!

당원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대고조격전의 일선용사가 되고 능숙한 군중동원자가 되자!

근로단체조직들은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당의 인전대, 믿음직한 방조자의 역할을 다하라!

근로단체조직들은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동맹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달하며 사회주의경쟁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가라!

청년들이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펼칠 휘날리며 승리의 진격로를 육탄으로 열어제끼라!

강성대국의 새날을 부르는 대고조전투에서 청춘시절의 멋있는 자서전을 새기라!

직맹원들이여!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워 자기의 혁명성을 남김없이 보여주라!

농근맹원들이여!
쌀로써 당과 조국을 만드는 선군시대의 애국농민이 되라!

녀성들이여!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대고조진군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라!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하자!

북과 남, 해외의 전체 동포형제들이여!
삼천리강도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위대한 통일강국을 일떠세워 후대들에게 안겨주자!

자주, 평화, 친선은 우리 당의 일관한 대외정책적리념이다.

자주는 정의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대외관계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자!

인류의 리상이며 미래인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진시켜나가자!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자!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여!
대고조전투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광활한 미래는 우리의것이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앞날을 축부 해주시고 빈터에서 천리마조선의 기적을 창조하신 수령님의 영웅적투쟁사가 우리를 고무하고있으며 일단 결심하여 못해낸 일이 없는 결출한 실력가, 완강한 실천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우리의 대고조진군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

모두다 필승의 심신과 락판에 넘쳐 10월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필승의 소원과 리상을 빛나게 실현하고 수령님께 승리의 보고, 기쁨의 보고를 삼가 드리자!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자!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10돐에 즈음하여 2월 5일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는 영광을 지닌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려고 계시는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동지 등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 알레리 추히닌과 대사관 외교관들이 공연을 보았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는 우리 민족고전작품들과 함께 세계적인



명작들을 형상할때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1958년에 무대에 올렸던 로씨야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재형상하였다.

로씨야의 유명한 시인 뽀슈킨의 운문소설에 기초하고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가극은 주인공 예브게니 오네긴의 형상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해야 할 청년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파멸시키는 귀족층의 부패한 생활과 19세기말 로씨야봉건사회의 불합리성을 폭로비판하고있다.

창조집단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6월 가극창조사업을 지도하시며 주신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하여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원작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높은 예

술적수준에서 더욱 세련시켜 가극을 훌륭히 완성하였다.

관람자들은 공연을 보면서 눈부시게 개화발전하는 주체예술의 면모와 우리 당 예술인후비양성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하였으며 탁월한 문예사상과 명도로 주체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독특하고 풍부한 성과 높은 수준의 연기, 실감있는 무대미술 등으로 완벽하게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진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새 세기의 혁신적인 안목과 70년대의 창조방식과 투쟁기풍으로 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가극을 창조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창작성공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음악대학의 애젊은 학생들이 전문배우들에 못지 않는 높은 예술적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어려운 외국고전가극창조과제를 원만히 수행한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주체예술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씨야의 고전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은 오늘날 현실적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청년들을 비롯한 새 세대들에게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5대혁명가극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재보를 가지고있으며 머지않아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세계를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고있는 우리 인민은 세계문화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체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가극을 친히 보아주시고 우리 인민을 가장 문명한 인민으로 키워주시려고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예술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주체예술발전의 적극 기여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9월체철종합기업소와 덕현광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9월체철종합기업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굳건히 마련된 생산태도에 의거하여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비상한 열의를 안고 새해전투에 진입한 조선인

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지금 전국도처에서는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기적이며 편일 창조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새차게 일으켜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를 빛내이라고 호소하시였다. 통신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안북도의 도로들을 돌아보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고 하시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이 사업을 계속 즐기차게 내밀

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자연개조사업,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국토와 자원, 자연환경을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게 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국토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조국강토를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

송,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통신, 체스코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코조선친선협회의 인터넷포드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9월체철종합기업소와 덕현광산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라오스 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함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폐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2. 16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2. 16경축 로씨야준비위원회가 1월 22일 모스크바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톨스찌코프, 로씨야연방 및 통일당 위원장 우달라도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계를 위한 로씨야사회계위원회 위원장 까르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 국제연합 총서기 뵈첸코가, 위원들로 전 소련군부상 야조브, 과학원 극동연구소 소장 짜마렌코, 베르리프스킨문사 책임주필 겐스코프 등 각계 인사들이 망라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월의 명절을

즈음하여 집회, 업적토론회, 강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16경축 캄보자준비위원회가 1월 22일 프놈펜에서 결성되였다.

노름 시하모니국왕의 지시에 따라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왕궁담당 부수장 롱 캄 율이, 부위원장들로 캄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쉐아 소트와 룬벤에크당 부위원장 쉐소와트 씨리라트가, 위원들로 캄보자인민당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인 캄보자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요스 슌, 문화예술성 국무부서 육 쉐오트, 룬벤에크당 사무국장

웅 메이삼, 크메르인민당 위원장 옥 포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에 대한 소개선전활동과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16경축 에티오피아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월 20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진행되였다.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회와 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인사들과 청년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서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니가투 다그나세우와 서기장 메드레네가 선출되였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결성식에서 연설에서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조선인민과 함께 공동으로 경축하는것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커다란 기쁨으로 된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는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토론회와 강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지하막장에 새겨가는 참된 삶의 진리

참된 인생의 궤도는 오직 하나이다.

오늘 란부들속에서 《우리들역대장》으로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불리우며 새해 대고조선군의 앞장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가고있는 덕성탄광 1갱 고속도굴진소대 권상철동무의 삶에 대한 훌륭한 대담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휴식함이나 오락회때마다 권상철동무가 늘 읊곤 하는 시의 한 구절이 있다.

... 무엇을 아끼라 그 무엇을 서슴라
그대 서슴없고 존엄높은 모습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드릴 수 있다면
내 불꽃은 석탄이 되여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 들어도 좋아라

서정시 《어머니》에서도 권상철동무는 이 구절을 특별히 좋아하며 막장에서 즐겨 읊곤 한다.

그렇 때마다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남모르는 소원도 제일 먼저 헤아려주고 따듯이 품어주고 내세워준 어머니당초동지들에게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은 찢뚫히곤 한다.

나도 본래있게 일하여 영웅이 되리라!
18년전 채탄공이 되여 막장에서 일을 시작한 권상철동무의 가슴속에 이런 큰 포부가 자리잡고있는줄을 그때는 아무

덕성탄광 1갱 고속도굴진소대 권상철동무

도 몰랐었다. 첩없었던 그 시절 일시나마 마음이 나약해져

한때 사람들의 말발에 울랐던 그였던것이다. 날과 달이 호를수록 권상철동무의 가슴속에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 불꽃처럼 치솟곤 하였다. 조국보위초소에서 표창 유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동장들을 만날 때에도, 꽃뚝이를 걸고 막장에서 나오는 혁신자들의 모습을 마주할 때에도 남몰래 자신을 그들과 나란히 세워보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그들과 너무도 먼거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절 없었던 지나온 나날들이 돌이켜져 피로움에 모태기군 하던 권상철동무였다.

(나도 언제나 부모들앞에, 동무들앞에, 집단앞에 몇몇한 위훈자, 혁신자로 될수 있을가?)

어느날 저녁이었다. 탄광문화회관에서 상영된 예술영화 《즐거는 뿌리에서 자란다》를 보고 돌아오는 권상철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문득 누군가가 찾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아니 소대장동지...》

자기가 늘 존경하고 따르는 고속도굴진소대 소대장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뜻깊은 최고봉상을 받아안았다고 자기는 결코 인민회의 대의원도, 로동영웅으로도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이름난 탄부였다. 눈금이 불그스레해진 권상철동무는 이윽도록 바라보던 소대장을 생각깊은 아사로 말하는 것이었다.

《상철이도 밤금 영화를 보았지. 우리 탄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

람들이요. ...

우리 언제나 명심하자구. 막장길은 갈매가 많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길이요. 우리 장군님을 따라, 우리 당을 따라 한치의 드림도 없이 곧바로 가는 길이 진짜배기란 부모 삶을 빛내이는 길이 아니겠소.

자기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따듯이 이끌어주는 소대장의 그 말이 고마와 권상철동무는 어깨를 들먹이였다.

그는 탄 사람이 된것이었다. 막장에 제일먼저 들어가고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이 권상철동무였다. 낫은 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았고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 몸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은 헛웃어지게 떨어지는 돌에 팔과 다리를 다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 교대 굴진계획을 수행하고서야 막장을 나선 것이었다. 그는 굴진과 채탄, 운반 등 막히는게 없는 만능탄부로 소문났다.

바로 그러한 때 탄광포급당일군이 권상철동무를 찾아왔다. 정장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던 당일군은 한번 들켜대물 무어 본래있게 일해보겠는지 어떤가고 묻는 것이었다. 권상철동무는 선뜻 대답할수 없었다.

《상철동무, 우리는 동무가 능히 해낼수 있다고 생각하오. 시대의 영웅처럼 살겠다는 동무의 그 포부와 투지면 못해낼일이 무엇이겠소.》

권상철동무의 눈가에 뜨거울 것이 흘러내렸다. 영웅이 되겠다는, 아직 누구에게도 비쳐본적이 없는 마음속생각을 어머니당초는 다 알고있는 것이 아닌가. 누구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자기가 찍어간 그 결을결음을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길로 다 지켜보고있는것이 아닌가. 권상철동무는 숨어오르는 격정을 애써 누르며 눈물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살면 천년을 살겠습니까? 순간을 선대도당의 믿음속에에서 살수만 있다면 이 한몸이 그대로 동방이 되고 착각기가 되어 막장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권상철동무의 집장의 목소리였다.

그는 1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탄광의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 맡아나섰다. 갱에서 굴진도중 석수가 터져 막장을 포기하고 에슬자는 의결이 제기되었을 때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석수를 맞받아 압박을 견디고 새 탄발을 열어놓은 사람들도 바로 이들이였다. 본선갱도가 복구되었을 때 두달이 걸려야 복구하던 기존관매를 깨뜨리고 한달동안에 봉락하는 것을 열어놓은 용사들도 권상철동무를 비롯한 청년들이였다.

몇해전 침수해복구전투를 벌릴 때였다. 물은 분초를 다투며 차올랐다. 깊이를 알수 없는 그 물속에 뛰어들어 쇠바늘을 대차에 편결하여 쇠바늘을 구원하는 전투는 말 그대로 목숨을 내대야 하는 결사전이였다. 그 앞장에 권상철동무가 나섰다.

《버럭!》이 될번 한 저를 《보석!》으로 소중히 안아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어찌 한시인들 잊을수 있겠습니까. 전 물러설수 없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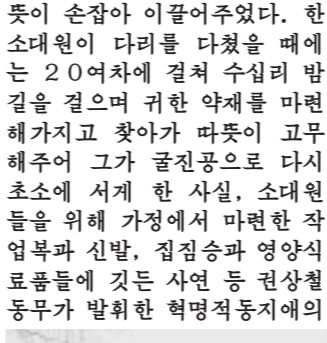
그 불같은 진정앞에 일군들

도 감동되고아름았다.

5분도 참기 힘든 찬물속을 수습이나 나막질하여 드나들며 권상철동무는 끝내 물결과 애써 누르며 눈물젖은 목소리를 구원하고아름았다.

권상철동무는 뜨거운 혁명적 동지애로 집단을 화목하고 단합된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키워갔다.

뜻하지 않게 봄방이 지는 위급한 순간에 서슴없이 한몸을 내내어 동지들을 구원하였고 부모없는 한 굴진공청년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친형의 심정으로 결혼상도 남부럽지 않게 차려주어 위훈의 한길로 변함없이 걸어가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었다. 한 소대원이 다리를 다쳤을 때에는 20여차에 걸쳐 수습리 밤길을 걸으며 귀한 약재를 마련해가지고 그가 따듯이 고무해주어 그가 굴진공으로 다시 초소에 서게 한 사실, 소대원들을 위해 가정에서 마련한 작업복과 신발, 집집마다 영양식료품들에 갖든 사연 등 권상철동무가 발휘한 혁명적동지애의



권 상 철 동 무 (왼쪽에서 두번째)

기적 소리에 비낀 진정

《분명 우리 5253호의 기적소리로...》

《저 기적소린 5377호의것이 틀림이 없어.》

신성전기관차대 수리부문의 종업원들은 이렇게 기적소리를 듣고도 자기 대의 전기기관차를 정확히 찾아낸다. 그 정도로 기관차들에 쏟아붓는 그들의 열정은 진정이 넘치고 헌신적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곤말건 당시 말려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중요화물수송에 참가하였던 전기기관차가 수리를 위해 정비대에 들어왔을 때였다.

《현재 우리 기관차의 전인전

신성전기관차대 수리부문의 종업원들

말이었다.

장조직의 지도와 방조속에 착상된 협동작전으로 수리부문의 일군들과 수리공들은 대가 맡은 전기기관차수리에서 전에 볼수 없던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기관차대의 전기기관차들을 다 제살불이처럼 여기는 그 관점이 중요한것이지요.》

기관차수리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를 두고 누구나 찬사를 거듭할 때면 수리중대 수리공들도, 준비중대의 정비공들도 이렇게 대답하곤 하였다.

전기기관차들을 제살불이처럼 여기고 온갖 심혈을 다하여 수리하고 정비하는것이 이곳 기관차대 수리공들의 습벽이다.

호담당의사들의 역할을 높여

철산군 선주리진료소에서 주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도 돌

보고있다.

올해공동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진료소 일군들은 의료일군들의 직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위생선진자들을 준비하여 주민들속에서 위생선진을 꾸준히 벌려 그들이 많은 위생상식을 알고 병과 예방을 활발히 벌려나가게 하고있다.

진료소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호담당의사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로동동원원 방 대 삼

영예군인이 못 잊는 아름다운 모습

학원건흥교류소 처녀들의 소행을 두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무조건서 희똥한 대가짓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데야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얼마전 신의주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오른 영예군인 혁명동무의 눈굽은 젖어있었다. 그의 무릎우에 다정다정한 자기를 바래주며 다정다정한 《너동생》들이 안겨준 인상을 비롯한 보양제들과 모근한 겨울내의들이며 솜뚱뚱 등이 놓여 있었다.

열차는 어느덧 역구내를 벗어났지만 그의 눈앞에서는 빗금 해어진 정다운 《너동생》들의 모습이 계속 얼른거리어다. 그들은 학원건흥교류소로 동차들이던 허옥영, 리남숙, 박향순, 리영옥, 민경미동무들이였다.

민들속에서 우리나라는 병조상과 이상정우에 대하여 당당의사들과 진료소에 제때 돌을 쳐오도록 정연한 체계를 세웠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위생선진자들을 준비하여 주민들속에서 위생선진을 꾸준히 벌려 그들이 많은 위생상식을 알고 병과 예방을 활발히 벌려나가게 하고있다.

진료소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호담당의사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로동동원원 방 대 삼

우리 인민보안원들

수고를 헤아려 가정에서 섬기

며만한 지천물자를 안고 달려온 이야기를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고있습니다.

창달로 진료소에 바친 이들의 수고와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다적절한 풀이 없습니다.

집합부드르에 비친 인민보안원들의 참모습에서 우리는 위대한 선군명장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인민보안원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담정신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습니다.

남포시 향구구역 은덕동 14인민반 서순애

2. 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만경대 방문



총련 금강산가극단 단장인 리용수 단장으로 하는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이 5일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예술단 성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

보며 사적품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으니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나라의 해방과 부강번영,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다. 그이여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우리는 그이의 유훈을 지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체결할때 대한 조신의무성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로도 계속 훌륭히 발전할것이라고 확신한다.

적도기네정부는 정치, 경제 분야에서 형제적조선인민과의 협조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자랑 많은 후방가족을 여섯까지 키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로 내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가슴속에 총대가 강하여 가정의 행복도, 조국의 부강번영도 있다는것을 새겨주었으며 중학교를 졸업하

스리랑카독립 62돐에 즈음한 기념강연회 진행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

하였다.

친선협회위원장은 기념강연회에서 스리랑카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

독자의 편지

남포시안의 주민들은 남포항 집합부드르로공사를 물심방면으로 도와준 남포시인민보안원인민보안원인 김광수, 리관수동무들을 잊지 못해하고있습니다.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하기 위해 피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을 가리켜 주민들은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인민보안원》이라고 부르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은덕동으로부터 하대동우에서 집합부드르로공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인민의 생명재산의 보호자, 인민의 행복을 가꾸는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적도기네 정부수상을 의례방문

김춘봉 적도기네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일 이그나시오 밀란 땅 적도기네공화국 정부수상을 의례방문하였다.

석상에서 정부수상은 적도기네와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는 오랜 전통을 가진 역사적인 관계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랑 많은 후방가족

을 여섯까지 키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로 내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가슴속에 총대가 강하여 가정의 행복도, 조국의 부강번영도 있다는것을 새겨주었으며 중학교를 졸업하

로동동원원 안 상 희

로동동원원 안 상 희

창조자답게 도로공사를 적극 도와나섰습니다.

도로공사장에 문제가 딸리면 남먼저 골재채취장으로 달려갔고 한밤중에 비가 쏟아지면 세멘트를 젖을가봐 야외광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로직의 길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도록 여러개의 다짐봉도 만들어 건설장에 가져다주었습니다.

도로로직업에 쓸 물이 강장하자 도로로직에 우물도 파서 보강할것을 발기하고 로동자들과 함께 며칠밤을 새워가며 우물을 파던 이야기, 건설자들의

〈우리 인민보안원〉들

수고를 헤아려 가정에서 섬기

며만한 지천물자를 안고 달려온 이야기를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고있습니다.

창달로 진료소에 바친 이들의 수고와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다적절한 풀이 없습니다.

집합부드르에 비친 인민보안원들의 참모습에서 우리는 위대한 선군명장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인민보안원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담정신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습니다.

남포시 향구구역 은덕동 14인민반 서순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이 새차게 타오르던 지난해 100일전투기간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험한 순간에 혁명동지들과 귀중한 국가재산을 지켜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는 자기희생정신, 애국적인 신심이 높이 발휘되었다.

이것은 혁명의 년대기마다에서 절세의 위인들이 보여준 혁명적동지애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굳은 각오와 국가재산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목숨바쳐 지키려는 숭고한 공민적자각의 발현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의 삶이 보람있는 것으로 되자면 영생하는 집단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는바가 있고 남기는것이 있어야 합니다.》

혁명의정통지애와 헌신정통애

혁명의정통지애와 헌신정통애

혁명의정통지애와 헌신정통애

혁명의정통지애와 헌신정통애

혁명의정통지애와 헌신정통애

혁명의정통지애와 헌신정통애

미풍이 날을 따라 높이 발휘되고

미풍이 날을 따라 높이 발휘되고

미풍이 날을 따라 높이 발휘되고

미풍이 날을 따라 높이 발휘되고

미풍이 날을 따라 높이 발휘되고

미풍이 날을 따라 높이 발휘되고

태양복을 누리는 우리 겨레의 한없는 긍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르는 인류의 경도의 마음어 그 어느때보다도 뜨거워지는 격정과 환희의 2월이 왔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북녘하늘을 송엄히 우리르는 남녘겨레의 가슴가슴도 천출위인 민족의 수위에 높이 오를 한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다.

지금 남녘겨레들은 민족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한없이 동경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것을 우리 겨레의 행운중의 행운이라고 격정을 더치고있다.

남조선의 한 재야인사는 가족들에게 자기의 마음속진정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폐지 않은 나의 일생에 태양과 대륙을 넘나들며 한다하는 정치가들을 수없이 만나보았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생애를 민족의 부락과 민족의 존엄, 국가의 통일을 위해 고수코라니 바치진 평도자는 오직 김정일국방위원장 한분뿐이다. 정치의 시작도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일적도 민족에, 조국에 두었던 것이 이이다. 김정일장군님은 민족명명의 수호자, 구세주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상이시다.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태양민족의 존엄이 온 세상에

덕을 빛을 뿌리고있다. 이것은 만민이 21세기의 태양으로 청송하여마지 않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받들어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사는 남녘겨레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것이다.

선군의 기치높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주고 빛내여주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기상과 의지는 바로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기상이고 의지인것이다.

열매진 서늘에서 진행된 자외회 회원들의 시공간담화장에서 《선군정치로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는 회세의 영웅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우리 민족의 마음은 든든하다.》, 《이북땅에 강성대국은 멀지 않아 솟아 빛날것이다.》, 《김정일강성대국 만세!》라는 격정의 함성들이 울려나왔다. 이 격정의 웨침마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우리르는 남녘겨레의 송고한 정신세계가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것인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통일조국의 무궁번영과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으며 김일성민족의 끝없는 영예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때부로 절감한 남녘겨레들이다.

하기에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가까운 앞날에 조국이 통일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통일강성대국이 우뚝 서게 될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경제강국건설에 떨쳐나선 북녘민족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웨침이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의 한 진보단체성원은 민족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21세기의 찬란한 미래를 띠고있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을 펼쳐보이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백두산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우리 겨레와 인류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태양의 광원을 받아안은 대행운을 지니었다.

김정일장군님은 김일성태양의 밝음과 김일성태양의 따스함 그리고 김일성태양의 주심력 그대로 21세기를 비추어주는 태양이시다. 이것은 지난 수십년간 쌓인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정치경력과 절출한 공적의 위대함이 실증해준다.

정치원로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되새겨보노라 하면 자연히 심장속에서 터져 나오는 애정이 있다. 그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민족은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고 통일을 이룩하여 영원히 강성부흥할것이라는 확신의 탄성이다.》

아무리 역사를 더듬어보고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아도 참다운 인민대중중심의 정치가 실시되고있는 곳은 우리 공화국밖에 없다.

비범한 평도의 손길로 온 민족을 광명한 미래의 언덕으로 인도하시는 절세의 위인, 사람과 인민의 빛과 열로 천하를 밝히고서 겨레의 운명을 보살피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우리 조국, 우리 인민만이 남다른 행운과 특권을 누리고있다.

그러나 민족사에 있어본적 없는 영광의 시대를 목격하는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서 어찌 절세의 위인에 대한 존경과 찬란의 정이 소용돌이지 않았는가.

위대한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안고살려는 남녘겨레들의 고결한 신념과 의지는 그들속에서 울려나오는 격조와 흥조의 목소리들로 그대로 어려왔다.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오늘이 북은 인구는 많지 않아도 세계를 움직이는 대국으로, 평도를 키지 않아도 초대국으로, 적 없는 강국으로 우뚝 솟아 위용을 떨치고있다.》라고 격찬하였으며 자주학회의 한 성원은 《이북이 자주로 존엄을 떨치고 자립으로 발전하는 참다운 주체의 나라로 그 위력을 온 세상에 높이 선양하고있는 것은 바로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정녕 걸출하신 김정일장군님의 명도따라 막강한 권력과 찬란군인의 일심단결로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이북이야말로 필승불패의 강국이다.》라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대구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들앞에서 《뛰어난 평도자를 모시지 못하면 국력을 키울수 없고 결국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수 없으며 일개인의 운명도 건질수 없다. 이 진리는 복잡한 정세과동속에서도 끄떡없이 나아가는 이북의 현실에 의해 확증되고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빛나게 개척될것이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터쳐놓았다.

민족의 행운이고 긍지이며 자랑인 백두산장군님을 찬탄하며 누려가며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펼쳐갈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은 위대한 선군명왕 김정일장군님을 통일강국 만세!》를 목격해 올린 찬란의 그날에도 달리고있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리르는 남녘겨레들의 다함없는 흥조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질것이며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할것이다.

김현철

남북 인민들의 열화같은 흥모

남조선인민들은 특출한 정치실력과 담력, 철의 의지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흥모의 목소리를 합쳐 백두의 2월을 노래하고있다.

정일봉의 희원 김철만은 백두의 선군명왕을 모신 민족의 끝없는 환희,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을 담은 《세기의 태양 누리를 비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장군님은 세세기를 비추어주는 찬란한 태양이시다.

백두산의 담력과 배짱, 천리해안의 예지와 선진기명으로 제국주의 편협체제의 협공을 분쇄하시며 민족의 존엄을 누리에 떨쳐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것은 태양복을 받아안은 우리 겨레의 대행운이라 해야 할것이다.

2.16 동지회 회장 김용중은 2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모임에서 《태양의 새봄이 태동하던 력사의 2월이 백두광명성으로 거연히 솟아오른 장군님은 우리 민족과 인류가 맞이한 또 하나의 절세의 기적이요 대행운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종의 성산 백두산에서 항일의 건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주석님과 항일의 녀장군이신 김정숙녀사의 아드님으로 탄생하신 김정일장군님은 비범한 예지와 피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는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다.

참으로 주석님의 사상, 명도적철과 인재를 한몸에 체현하신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실천가, 21세기를 주도하실 유일무이의 대정치가이신 장군님께서 계시어 단군조선의 오늘의 존엄이 있고 인류의 밝은 태양이 기약되어있다.

항일회 성원들은 남조선곳곳에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천봉으로 체현하신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단군민족의 정통성을 이어가시는 절세의 예주자이시며 민족존엄의 상징이시다.》,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은 존엄높은 태양민족으로 영원히 빛을 누릴것이다. 영원토록 받들자 김정일장군!》 등의 글말이 쇠여진 선진선물을 수없이 배포하여 남녘겨레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서울과 인민의 대학교수, 회사원,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오늘 우리 겨레가 자주민족으로 세상에 존엄떨치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력사의 2월이 안아온 민족의 대행운이다.》, 《백두산에서 솟아오른 붉은 태양이 삼천리를 비치고 온 누리를 밝힌다. 백두광명성 광휘속에 김정일시대의 아침은 밝

았고 그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백두산장군복을 안아온 불남과 더불어 위대한 김정일강성대국의 찬란한 태양이 소리를 울리고있다.》고 열렬히 격찬하였다.

김일성민족의 행복과 번영,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는 영원한 조선의 봄 백두의 2월을 안고사는 남조선인민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굳은 신념으로 더욱 부풀어오르고있다.

정치평론가 문무정은 《태양을 떠나 세상만물의 생존을 생각할수 없듯이 백두의 천출명왕 김정일장군님을 떠나 오늘의 환희로운 자주통일시대와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더구나 총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명령도 아니었다면 오늘 태양민족의 긍지, 영예감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을것이다.》고 강조하였다.

한 재야인사는 우리 민족이 그처럼 뜨거운 눈길로 바라본 인민대중이 오는 선군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올라 민족의 앞길을 밝히고있다고 하면서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군정치가 있어 민족의 존엄과 위용은 더욱 빛날것이며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통일강성대국이 자랑스런 현실로 찬란히 꽃피어날것이다.》고 확신하였다.

본사기자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여

우크라이나고통련 성명 발표

우크라이나고려인통일연합회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에서 채택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여 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최근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과 전쟁행동이 더욱 팽창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속에서 체제대결소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러 국제적으로도 통일교섭을 위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크라이나의 불신과 적대는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반동보수세력의 책동을 더이상 방임한다면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피할수 없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배양과 협력의 가로막고 통일교섭을 탄압하는 무모한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성명을 주장하였다. 성명은 우크라이나고통련은 올해 6.15 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북남공동선언의 민족사적의의와 생활력을 만방에 다시한번 과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폭압 조치철회를 요구

남조선의 《법민권담담대우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1월 29일 서울의 통신기자들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경찰의 탄압책동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조국통일법민족련합회(법민련) 남측본부 부장 리영애를 비롯한 3명에게 항상 《지방경찰청》이 여러차례에 걸쳐 출두요구를 반복한데 대해 인준하였다.

그들은 경찰이 부산에서 법민련 남측본부 경성 19군구 기념회에 참가한 것을 트집잡아 이러한 탄압을 가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일본이 성도예뵈회의 반인륜성을 역사교과서에 정확히 기록하여 새 세대들을 올바르게 교육해야 한다고 결의문을 지적하였다.

결의문은 남조선 《경보》와 《국보》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일본이 죄악에 찬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하는데 나서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호전광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

재중 조선인총련합회 성명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1월 27일 《북남대결을 추후하는 호전광들에게는 용량 무자비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진화적 국면을 열기 위해 공화국정부가 주동적이고도 대담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서있는 노력을 다해온데 대해 인준하였다.

이에 불구하고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신세타격》 폭언을 늘어놓았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로로 몰아가고있는 호전광들의 불순한 도정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2008년 3월 《합동참

모든 부의 장내정 국회의원사적문》이라는 제목의 책자까지도 정밀유도복의 핵 《신세타격》 할것이라고 웨친 바 있는 자가 《국방부》 장관자리에 올라앉아 또다시 《신세타격》 폭언을 공공연히 늘어놓은것은 그 어떤 실언이 아니라 북남관계개선을 말갯와하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의 《신세타격》 폭언을 늘어놓았다고 성명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로로 몰아가고있는 호전광들의 불순한 도정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2008년 3월 《합동참

평화 파괴책동을 단죄

막대한 양의 무기를 팔아먹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무모한것이라고 논평은 규탄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미국이 《평화》에 대해 떠들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북핵문제》를 운운하고있다고 하면서 도적이 매를 두는것은 바로 미국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실은 조선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논평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주장

남조선의 전라북도 진주시 《의회》가 1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은 일본정부가 과거 일본군 《위안부》 범죄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 배상하는것과 함께 관련자들을 전면 공개하여 피해자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정보원》의 불법행위에 항의

남조선의 《미디어행동》, 민주총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연대 등 언론 《정보원》이 방송청취로남 무분제까지 이어지는 단국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장악한 《KBS》 방송을 《검호》하기 위해서라고 단계를 들었다.

단체들은 《정보원》이 불법적인 민간사찰과 인권유린행위를 저지르고있는것을 계속 저지르고있는것은 《력권만 잡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과 독선이 자리잡고있기때문이라고 단죄하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권》하에서 《정보원》의 불법행위가 그토록 있고있다고 하면서 그 두두머리인 원세훈이 당장 사퇴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보수집권세력의 반동을 규탄

조국통일법민족련합 남측본부가 1월 26일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독재적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민주노동당 대외부장 김진호 《진교조》 소속 교원들, 《PD수첩》 제작진 등에 무죄선고와 내리진것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과파적인 판결》이니 뭐니 하며 《법원》에 정치적압력을 가하는 등 로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주장

남조선의 전라북도 진주시 《의회》가 1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은 일본정부가 과거 일본군 《위안부》 범죄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 배상하는것과 함께 관련자들을 전면 공개하여 피해자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개선의 암초

북남관계를 발전시키자면 남조선에서 동족과의 배양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비롯한 광범한 각계층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이 서로 배양과 접촉을 강화하고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북남사이의 신뢰와 리해가 도모되고 화해와 단결이 실현되게 된다.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배양과 접촉, 협력과 교류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그러나 현인력을 비롯한 남조선 《통일부》 폐거리들은 동족과의 배양과 협력을 지향하는 민간단체들을 아끼고 지지하지 않는 행동을 가로막고있다. 그들이 아니라, 파쇼당국은 반동일파적인 《보안법》을 휘둘러 조국통일법민족련합(법민련) 남측본부와 《진교조》를 비롯한 통일운동조직이던 민중단체들을 아끼고 지지하지 않는 행동을 가로막고있다.

남조선군부세력은 년초부터 그 누구도 《침투》와 《국지도발》을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열매진 악행들은 호전광인 《국방부》 장관 김태영은 우리의 지위적인 핵억제력을 결코들며도 모험적인 《신세타격》 폭언을 또다시 웨치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있지 않는 북의 《위협》에 대하여 적구 광고하는 목적은 사회각계에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고취하고 저들의 북침전쟁책동을 합리화하려는것이다. 남조선보수세력이 허황하게 그지없는 《검문사태》에 대해 고이대며 그에 따라 《통일대결탐색연구》와 같은 모략적인 북침작본들을 꾸며냈것은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부정하고 《흡수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이다.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과 국유보수세력들이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에 아니라 대결과 파국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모험이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북남관계개선을 대화에 대한 의지가 없으며 그들이 추구하는것은 북침야망뿐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의 파쇼적인 반동일파적행위는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해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은 정 철

정철의 평론 《백두광명성》

